

##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의 의미: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벧전2:9-10

지금 세상은 포스트모던시대, 절대적인 진리, 성경, 하나님을 부정한다.

교회 안에서도 WCC, WEA, 로잔 대회 등 대규모 종교 통합 집회가 열리고 있다.

천주교화 기독교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세계복음연맹(WEA) 총재를 지낸 김상복 목사의 주장: 김상복 목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믿는다'는 두 가지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기독교로 인정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목사들에게는 또 다른 책무가 주어졌다. 자유주의/신복음주의자들의 계약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고 성경만을 신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진실...

행20:27-30, 내부 외부의 적들의 공격

포스트모더니즘 세상,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퀴어신학이라는 것이 있다.

10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퀴어신학은 이단으로 압도적 결의(\*)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결의했다. 감리교 제36회 총회 둘째 날인 10월 31일 오전 회무에서 제35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원 감독, 이하 이대위)가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해 달라고 건의하자, 총대들은 압도적인 지지로 이를 가결했다.

이용원 이대위원장은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퀴어는 '기묘한', '괴상한' 말의 의미였지만, 지금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 성소수자를 지칭해 사용된다"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을 '동성애'가 아닌 '이방인을 학대하고 모욕한 죄'라고 본다. 나오미와 룻, (예수님께 하인을 치료해 달라고 했던)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를 동성애로 해석하는 등 성경을 왜곡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퀴어신학에 대해 ▲감리교 교리와장정에 위배되고 ▲존 웨슬리의 신학에 반하며 ▲반기독교적 이단 사상이고 ▲사회 문제를 야기하며 ▲타 교단들도 이를 이단으로 규정했다며 총대들의 판단을 물었다.

김찬호 감독은 "퀴어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자성교의 형상이라 하고, 예수님을 게이라 하고, 성령 하나님을 남녀불문한 동성애 허용으로 보며, 삼위일체를 훼손한다. 퀴어신학의 대부 테오도로 제닝스는 다윗과 요나단이 게이라고 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곡해하는 퀴어신학을 반드시 이단으로 결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 2024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6인의 감리교 목사 동성애 축복식에 참여하였고 고발당했다 (\*). 이 일을 처리한 김찬호 감독의 말: "한숨도 못 잤다. 목회자 6명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동성애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며 "알고 지내던 분들이 퀴어축제에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축복식을 거행했다. 2019년 부평에서 축복식 이동환이 출교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의 출교가 거룩하다'고 하고 언론에 공개적인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고 말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제 결의해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다.

김찬호 감독의 중부 연회, 2023년 4월, NCKK, WCC 탈퇴 결의, 찬성 436, 반대 37명(\*)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지난 몇 주에 걸쳐 Only One Way라는 책(6장)을 중심으로 몇 주제를 설교하였다. 한 하나님, 한 구원자, 한 진리, 한 백성, 한 길 등

지난 네 주, 1.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에도 하나님과 사람은 동일하다

2. 성경의 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포스트모더니즘 WCC 극복하기

3. 인간의 죄 문제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4.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인가? Yes!

오늘 < >,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의 교회

아담과 이브의 타락, 메시아 약속,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죄들에서 구속하고 계신다(에수의

의미, 마1:21).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릴 자(엡1: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이 머리, 우리는 몸의 지체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나는 목사들의 모임, 기타 학교의 다른 모임 등 거의 가지 않는다.

교인들과의 모임 가장 기쁘게 여긴다.

내 모든 허물, 실수, 실패를 성도들이 다 안다.

내 연약함 가운데서 이들을 섬기는 것이 내 기쁨이다.

3번 설교, 주중 이사야서 강해 등, 5-6회, 이렇게 섬기는 것이 나의 책무요 기쁨이다.

교회는 크리스천 삶의 기초이다.

그래서 공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 교회의 리더들, 공예배(오전, 오후, 가능하면 금요일)

히10:23-25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교리와 실행 면에서

####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1:1-2, 소아시아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 이방인과 유대인, 주변 사람들에게 이등 시민으로 낙인찍힘  
이러는 가운데 네로 왕제의 박해(64년 7월 로마 화재), 말할 수 없는 시련, 베드로의 위로의 편지  
벧전2:9-10, 그리스도인의 말할 수 없는 복

그는 출19:4-6 말씀을 근거로 이러한 위로를 주고 있다.

또한 신7:6-8도 근거로 들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양의 피로 구속받음(벧전1:18-19)

그래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이미 끝내 놓으신 일로 인해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11-12절에 기록되어 있다.

11절: 피할 것, 12절: 해야 할 것

즉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신분에 맞게 살라.

#### 선정받은 자들(9)

우리는 선정받은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마1:1),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선정되었다는 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차별성이 있는 자들

어떻게 우리가 선정된 한 백성이 되는가?

공통된 민족이라: 아니다. 유대인 이방인

말이나 문화가 같아서: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으로 인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물론 그분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 것이다(벧전1:2)

지금 이들은 네로의 박해를 당하며 살고 있다 혹은 앞에 두고 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격려와 위로를 주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세상의 마지막 시대, 사악함의 극치

물론 우리는 휴거를 받지만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눈앞에 오면서 보지 못할 것들을 보면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롯의 고통(벧후2:7-8)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

그래 우리는 공예배에 모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찬양해야 한다.

찬양의 내용: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엡2:8-9)

## 왕가의 제사장(9)

이 말의 의미: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섬기는 자

왕도 섬기는 자이다. 좋은 왕은 반드시 섬겨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긴다.

다윗은 자기 세대를 섬김(행13:36)

신약 시대의 특징: 전 성도 제사장,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갈 수 있다.

왕과 제사장의 임무: 전력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막10:42-44, 요13 그들의 발을 씻어 줌 )

베드로의 말 의역: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자신과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고 서로를 위해 섬길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위대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섬겨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위대한 아이러니(엡2:10)

케네디의 취임 연설 1961년: 케네디,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일을 해야 한다.

## 거룩한 백성(9)

벧전1:15-16

거룩함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레위기 27장 전체가 말하는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야 한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사6:1-6

나오는 반응: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 내가 얼마나 추악한가?

어떤 자동차 단지 사장이 말했다. “제가 모든 구매자들에게 전도지와 책자를 주겠습니다”

목사의 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손님들을 속이지 마세요.”

이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다(12절). 교회에 매일 나가서 철야 금식 기도하고...가 아니라 집안생활,

직장 생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 특별 소유 백성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이라는 말이다. 특별 보물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뜻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대대로 소유할 상속 재산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을 소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를 아들딸로 삼아 영원히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있으면 늘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 결론

요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기도

17: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17:23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스필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답은 무엇인가? Yes.

17:24,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볼 것이다.

왜, 우리가 그분의 특별 소유 백성이므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 소유인 한 백성을 기뻐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백성이 있지 않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공훈의 탁월함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입술과 삶으로 그분의 거룩함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12).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이다.

9절: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란다.